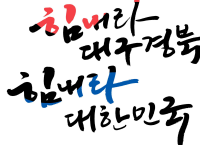
 산업통상자원부		<h1>보도자료</h1>		
http://www.motie.go.kr				
<p>2020년 5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월 13일(수) 17:00 이후 보도 가능)</p>				
배포 일시	2020. 5. 13.(수)	담당부서	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	
담당과장	양병내 과장(044-203-4910) 최우혁 과장(044-203-4920)	담당자	김종연 서기관(044-203-4913) 이윤진 사무관(044-203-4921)	

소재 · 부품 · 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,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 본격 추진

- 4월1일 소부장 특별법 시행 후 첫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
- 산업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7건 협력모델 사업도 승인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5.13일(수) 14시 화학연구원에서 「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」를 개최하고, 총 5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

<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0.5.13(수) 14:00~16:00 / 한국화학연구원
- (참석) 경제부총리(위원장) 산업부 장관(부위원장), 관계부처 장관, 민간위원
- (안건) ①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, ② 스타트업100 발굴·육성계획, ③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, ④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, ⑤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

- 금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4.1일 「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, 법에 규정된 핵심 전략기술, 특화선도기업,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이 심의, 의결된 것임

- ① 범부처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, 특화선도기업 선정·육성 방안을 마련함

- ② 또한,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하고, 소부장 기업지원 역할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함
- ③ 아울러,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한 R&D 등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·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됨
- ④ 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함

□ 한편,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작년 日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(붙임 참조)

< 日 수출규제 이후 성과 주요 내용 >

- **(3대 품목)** 불산액, EUV레지스트, 불화폴리이미드는 △美·中·유럽산 제품 대체투입, △美듀폰社 투자유치, 솔브레인社 생산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화 달성
- **(20대 품목)** △대체품목·생산투입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존도 축소, △SKC·효성 등 총 7,340억원의 대규모 신증설 투자로 공급기반 강화 및 △주품목 기술개발 진행중
- **(80대 품목)** △기존대비 재고보유 수준을 2~3배로 확대, △신증설 투자(5건) 및 SK 실트론-美듀폰(SIC웨이퍼 사업부) 등 13건의 M&A 완료, △주품목 '20년 기술개발 착수

○ 또한,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,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,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함

*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적 근거 : 핵심전략기술(제12조), 특화선도기업(제13조), 융합 혁신지원단(제28조), 특화단지(제45조), 협력모델(제45~50조) 등

□ 심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

-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, 이를 개발·생산할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음
 -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現 시점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하에,
 -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,
 -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·생산·글로벌화 쏠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한 것임
- 산업부는 5월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,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/4분기 중 기업 선정할 계획
 -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, 신청 기업들의 역량, 기술의 중요도·시급성 등을 고려해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

가.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

- (선정기준) 핵심전략기술은 ①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②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(소부장 특별법 12조)

기 준		내용
①산업 안보 중요도	국가안보	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·안보적 중요성
	기술수준	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
	산업규모	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
②산업 파급 효과	생산/투자	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
	시장전망	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

- (선정결과) 100대 핵심전략품목*을 중심으로 산·학·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

*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('20.1월)에서 확정

< 6대 중점분야 핵심전략기술 >

분야	반도체	디스플레이	자동차	기계·금속	전기·전자	기초화학	합계
기술수	17	10	13	38	18	4	100

나.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

-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혁신, 사업화, 글로벌화, 규제특례,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을 마련

① (기술혁신)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&D를 자율방식(기간, 방식, 컨소시엄 등)으로 지원

- 또한,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

-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·중견기업 (現) 각 67%, 50% → (改) 35% 이상, 중소기업은 (現) 33% → (改) 20%이상으로 완화, 현금 부담 비중은 모두 10%로 이상으로 완화

< 민간 부담비율 변경(안) >

기업유형	민간부담금		현금부담비중	
	현행	변경	현행	변경
대기업	67%이상	35%이상	60%	10%이상
중견기업	50%이상		50%	
중소기업	33%이상	20%이상	40%	

- 아울러,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, 기술자문,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 지원

② (사업화)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

- (융자) 기업의 先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에게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*

* 금리우대(중소 △0.7%p, 중견 △0.6%p), 전결권 하향 등

- (펀드) 소부장 성장지원펀드(4,000억원)를 통해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&A, 설비투자 우선지원
- (세제) 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(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설 추진)

③ (규제특례)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“규제하이패스 제도”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

-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애로접수 창구로 지정 →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개선 여부를 회신, 개선 가능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
- 화평·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
- 모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경쟁력委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·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 검토하여 개선 추진

④ (글로벌화)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거점 구축, M&A 컨설팅, 해외 마케팅 등도 적극 지원

⑤ (홍보)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측면을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적극 홍보*

* TV방송, 라디오, 고유 BI(Brend Identity), 홍보대사, 우수기업 훈·포장 등

- 또한, 법률상 명칭인 “특화선도기업”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△ 고유 명칭 선정*, △ 고유 마크 제작*, △ 홍보대사 위촉

* 기업선정 공고 및 신청 접수 시, 고유 명칭·마크에 대해 의견수렴하여 최종 결정

□ 한편, 상기 전용 지원책 외에도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 추진

○ 아울러, 특화선도기업 선정 이후에도 특화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

주요 지원 프로그램			
기획 ▶ 기술개발 ▶ 실증 ▶ 생산 ▶ 판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			
R&D 등 정부출연	발전전략 수립 ▶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▶ 수요-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	기술개발 ▶ 소부장 R&D, IP R&D, 국제공동 등 ▶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	실증·양산 ▶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▶ 신뢰성·양산평가, 보증 등
금융·투자·세제	융자·대출 ▶ 시설투자, 운영자금 ▶ 수출자금 융자	투자·M&A ▶ 투자펀드, 정책금융 ▶ 국내외 M&A 정보제공, 알선·중개, 자금지원, 기술 상용화 등	세제 ▶ R&D·시설투자/M&A 등 세액공제,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
공공 인프라	출연연 기술·인력·장비 ▶ 출연연 보유 기술, 인력, 장비 기업 이전·사용	인증·표준화 ▶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▶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	수출·판로 ▶ 수출바우처, 해외마케팅, 전시회 등
규제 등 애로해소	인허가 ▶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▶ 지자체 등 규제 즉결처리	각종 특례 ▶ 특별연장근로 인가, 장비도입절차 간소화, 청년의무고용 예외 등	입지 ▶ 특화단지 지정,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배정,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

2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방안

□ 정부는 4.7일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‘융합혁신지원단’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실행방안을 제시함

①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, 기업지원 역량을 결집하고, 기업맞춤형 3대서비스를 강력 제공함

○ 융합혁신지원단 내 상설 ‘기업지원데스크’를 설치*하여, 공공연구기관 내 인력·장비** DB를 구축·공유하는 한편,

* (홈페이지) 융합혁신지원단.org, (콜센터) 02-6009-8000, (오프라인)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층

**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.1만명, 연구장비는 2.6만개

○ ①기업맞춤형 지원제공, ②테스트베드 확충 및 신뢰성·양산평가 지원 (‘20년 2,100억원), ③“상생형 협력지원” 확대*를 중점 추진함

* (사례) 현대차-공급기업-융합혁신지원단 간 상생협력 협약(4.7) : 지원단이 공급기업 제품의 품질개선 지원하고, 현대차는 품질개선품목에 대해 양산평가.제품구매 시 우대

② 공공연구원이 기업지원을 확대하도록 성과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

- 공공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제를 최초로 허용하고,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·기관은 성과평가 시 가점·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임
- 아울러, 기업에 연구인력 파견·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업친화적 제도도 병행 추진함

3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

□ 또한,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Hub로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·육성 방안을 발표함

- 정부는 ①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, ②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(계획)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~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,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임

* (지정절차)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신청 → 부처협의 → 경쟁력위 심의 → 산업부장관 지정

□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

- ①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 및 성능테스트 수요가 많은 소부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,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임
- ②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全过程 지원을 강화하고, 수요-공급기업간 양산성능평가, 정보공유 등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
- ③ 또한,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소부장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도·전기·통신·가스·하수도·공공폐수처리·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,

- 입주기업에 대해 “규제 하이패스(가칭)”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*를 제공해 나갈 예정임

* 규제 애로사항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애로접수, 부처 협의 및 컨설팅 사업 등 안내

4 수요-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

- 정부는 지난 제3차 경쟁력위원회(‘20.1.22)에서 6건의 협력모델**을 승인한데 이어, 금번 총 7건의 협력모델을 추가로 승인하였음

* 제2차 경쟁력위원회 4건(‘19.11.20),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(‘20.1.22)

* 수요·공급 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·자금·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(소부장 특별법 제49조~제50조 근거)

- 승인된 7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4건,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함

-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

- ① 대상 품목은 항공기용 소재, 이차전지 공정 장비, 반도체 공정 로봇, 불소계 필터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나,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
- ② 특히, 장비개발과 방산분야 협력은 이번 모델에 처음 포함되었으며, 전속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수요처 교차납품 방식 등이 채택되는 등 협력의 대상·범위를 확대함

< 구체적인 협력모델 예시 >

- **A사업:** 공급기업 가社は 방산협력을 통해 개발소재를 군수분야에 우선 적용 후 민수분야로 확대
- **B사업:** 공급기업 나社は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장비업체 다社와 협력하여 同분야 장비까지 국산화
- **C사업:** 공급기업 라社は 협동R&D로 경쟁국 이상의 품질 확보, 교차납품을 통한 공급망 체질 개선

- ③ 정부는 협력모델 사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R&D, 정책금융, 인력, 규제특례* 등 포괄적인 패키지형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임

*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, 공장 신/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, 인력고용 제한규정 완화 등

- 한편,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 3건은 수입 의존도가 큰 반도체 공정 소재·부품으로,
 - 대·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과 정부지원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,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
 - 정부는 금번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7개 협력모델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, 차질 없이 지원사항을 적극 이행해나갈 계획임
 - 또한, 지난 10건의 협력모델에서 반복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반영*해 온 것처럼,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·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갈 예정임
- * 소부장 R&D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청년의무채용 시점 유예(사업 1년차→사업종료 1년전) 및 소부장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고용부 장관 인정 시 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3건
- ▶ 붙임.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
 - ▶ 별첨. 1.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(안)
 - 2.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원의 기업지원강화방안
 - 3. 특화단지 추진계획(안) 안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이윤진 사무관(☎ 044-203-49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**(총괄 요약)**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.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,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
- 불산액, EUV레지스트,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△ 미국, 중국,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, △ 美듀폰社 투자유치, 솔브레인社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
 -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△ 재고량을 ‘주단위에서 월단위로’, ‘1개월에서 3개월 내외’로 점진적 확충하여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~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,
 - △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,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,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
 - △ 이와 더불어, 13건의 M&A와 7,34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음
 - 또한,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
 - ‘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’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, ‘막상해보니 되더라’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
- **(세부 내용)**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

① (3대 품목)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

-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, 美, 中 등 제품을 테스트 완료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
-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,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방식의 공급기반 확보
-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,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, 일부는 해외 수출중, 국내 공급 능력 대폭 확충 전망

② (20대 품목) 다변화, 내부화 및 기술개발 진행중

- 대체품목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 감소
 - * 전극소재(美 A社), 센서부품(韓 B社) 등은 대체품 양산테스트 진행중
- 국내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,340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 확대로 공급기반 강화
 - *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('19.하), 효성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('20.상)
 - * B社 센서부품 공장 증설('20.하), D社 비금속소재 공장신설 등 진행중
- 20대 품목에 대해 41개 과제 기술개발('19.추경 650억원+'20년 1,165억원) 진행중

③ (80대 품목) 재고확대·다변화로 공급안정화, 기술개발 본격 착수

-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,
('19.7월 1.3개월→'20.1Q 2.6개월)
 - * 전자제어장치(1주→1.5개월), 기판소재(2주→2개월), 배터리 핵심소재(2주→3개월) 등
- 신·증설투자 5건 완료(E社 기판소재 증설('19.하), F社 특수흡착제 신설('20.상)), SK실트론 美듀폰 SIC웨이퍼 사업부 인수('20.상) 등 M&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
- 한편,全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 '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
 - * 과제기획('19.10~) → 과제공고('20.1~3) → 선정평가('20.4) →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('20.5~)

④ (경쟁력 강화)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('20.3월)으로 4.1일 차질없이 특별법 시행완료, 제3차 경쟁력위원회('20.1월)를 통해 협력사업 6개 추가 승인

- * 현재까지 총 세차례 경쟁력위원회('19.10월, 11월, '20.1월)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, 쏘과제 정상추진중
-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'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(48%)하고, '20.1/4분기에 22개* 추가 이행완료 →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(77%)
 - * R&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('20.3월), 환경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('20.3월),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지침 제정('20.1월) 등
-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'20년 2조 725억원 중 1조 915억원(52.7%)을 '20.4월말까지 조기집행 완료